

leet 분석 1주차

- 어려운 글을 읽어버릇하고,
어려운 글을 읽으며 생각해 버릇할 때,
어려운 글일지라도 잘 읽을 수 있다.

활용 방법

1. 실전처럼 시간 재고 풀기
→ 한 지문에 10~13분
2. 채점 전 답을 고른 사고과정 점검.
3. 채점 후 스스로 지문 분석
→ 내용정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독해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둔 분석.
4. 스스로 문제 분석
→ 근거 찾기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답이 나왔을
까에 초점.
5. 해설지를 읽으며 자신의 독해 과정과 비교·보완.

1일차 지문 해설

법의 본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독해 시 첫 문장, 첫 문장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글이 그렇지는 않지만, 도입 부분에 글의 핵심과 방향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으니 독해 시 처음부터 속도를 높여 읽는 것보다 첫 시작은 차분하게 독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문으로 돌아가 보면, 법의 본질이 글의 핵심을 다루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논의들이라고 했으니 각각을 구분하며 읽어야 할 것 같다 정도만 생각하고 독해를 진행합니다.

그 오래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사회에 형성된 관습에서 그 본질을 파악하려는 견해이다. **관습이론**에서는 이런 관습을 확인하고 재천명하는 것이 법이 된다고 본다. 곧 법이란 제도화된 관습이라고 보는 것이다. 관습을 재천명하는 역할은 원시 사회라면 족장 같은 권위자가, 현대 법체계에서는 사법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입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제정법 또한 관습을 확인한 결과이다.

법의 본질을 사회에서 형성된 관습에서 파악하는 **관습이론**이 등장합니다. **관습이론의 정의를** 정확하게 짚고 가야겠죠? 관습이론은 법은 관습이 제도화된, 재천명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민법의 중혼 금지 조항은 **일부일처제의 사회적 관습에서 유래하였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사회의 문화와 관습에 어긋나는 법은 성문화되어도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관습을 강화하는 법이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문법이 관습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예시를 통해 관습이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에서 예시를 통한 구체화가 나온다면 예시를 그냥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닌 개념과 예시를 정리하고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중혼금지 조항은 일부일처제=사회적 관습에서 유래 되었고(관습이론의 개념을 재진술한 수준이죠?), 더욱이 문화와 관습에 어긋나는 법은 효력이 없다. 즉 법은 관습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예시를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읽으셨다면 3번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법을 사회구조의 한 요소로 보고 그 속(사회구조)에서 작용하는 기능에서 법의 본질을 찾으려는 **구조이론**이 있다.

앞까지는 관습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구조이론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됩니다. 이 문장을 읽고 바로 각각의 이론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야 합니다. 사실 첫 문장만 봐도 글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이제 이 문장까지 읽었다면 확실하게 각각의 이론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읽겠다는 '인식'을 하시고 글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이 이론(구조이론)에서는 **관습이론**이 법을 단순히 관습이나 문화라는 사회적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데 대해 **규범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규범을 설명하는 오류라 지적한다**.

구조이론이 관습이론의 오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이론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이 비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조이론에서는 **교환의 유형, 권력의 상호 관계, 생산과 분배의 방식, 조직의 원리들이 모두 법의 모습을 결정하는 인자가 된다**. **이처럼 법은 구조화의 결과물이며, 이 구조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책이 필요하기에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구조이론**에서는 상이한 법 현상을 사회 구조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설명한다.

구조이론의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의 모든 요소(교환의 유형, 권력 관계 생산 분배 방식 조직 원리 등)가 법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이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요소들이 구조화된 결과물이 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법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은 사회구조 차이 때문이란 것까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tip - 구분하며 읽을 때

구분하며 읽을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앞서 제시된 개념과 구분하겠다는 의식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시된 해당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 서칭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라면 대충 구분하면 된다고 의식하고 답을 찾을 때 서칭을 하면 되지만 요즘 추세로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글을 읽는 방법, 글의 구조를 알아도 글을 읽고 소화할 수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1921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워진 모샤브 형태의 정착촌 A와 키부츠 형태의 정착촌 B는 토지와 인구의 규모가 비슷한 데다, 토지 공유를 바탕으로 동종의 작물을 경작하였고, 정치적 성향도 같았다. **그런데도 법의 모습은 서로 판이했다**. A에서는 공동체 규칙을 강제하는 사법위원회가 성문화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고 제재를 결정하였지만, B에는 이러한 기구도, 성문화된 규칙이나 절차도 없었다. **구조이론**은 그 차이를 이렇게 ① 분석한다. B에서는 공동 작업으로 생산된 작물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성이 높고 집단 규범의 위반자를 곧바로 직접 제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작물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A에서는 구성원이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규율로는 충분하지 않고 공식적인 절차와 기구가 필요했다**.

예시가 길지만 핵심은 쉽습니다. 우선 말씀드렸지만 예시를 통한 구체화가 보일 시 반드시 의식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앞서도 말한 개념과 예시를 연결하고 가는 과정입니다. 예시를 읽어보니 A와 B의 사회구조는 유사하지만, 법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차이를 **구조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유사한 점이 많지만 생산과 분배의 방식, 조직의 원리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구조이론에서는 교환의 유형 상호 관계 생산과 분배 방식, 조직의 원리가 법의 모습을 결정하는 인자라고 분명히 제시해주었습니다**. 앞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했다면 이 예시를 이해하는 것에 무리가 없었겠죠? 기출에서 이렇게 앞서 나온 표현이 다른 말로 재진술 되는 걸 파악하고 실제 독해 시 그를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예시는 **생산과 분배의 방식, 조직의 원리와 같은 사회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법 현상이 나타난다**로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의 존재 이유가 사회 전체의 필요라는 **구조이론**의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과 제도로 유지되고 심화되는 불평등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갈등이론**도 등장한다.

구조이론의 이후 갈등이론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앞서 구조이론은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책으로 법이 도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법의 존재 이유가 사회 전체의 필요라는 구조이론의 전제라고 재진술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갈등이론**을 설명할 때 굳이 구조이론의 전제를 재진술했다면, 의식적으로 구조이론의 전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합니다. 구조이론의 전제(사회 전체의 필요)vs갈등이론의 전제(법으로 인한 불평등에 주목)를 대비하며 갈등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갈등이론의 느낌은 오는데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갈등이론에서 법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 **지배 집단이 억압 구조를 유지·강화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영위하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갈등이론은 법이 지배층이 이익을 영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

고 있네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도 없고 자연스럽게 이해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는 아동 노동 보호법을 만들려고 노력하여 20세기 초에 제정을 보았다. 이것은 문맹, 건강 악화, 도덕적 타락을 야기하는 아동 노동에 대한 개혁 운동이 수십 년간 지속된 결과이다. 이에 대해 **관습이론**에서는 아동과 가족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전통적 관습을 재확인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구조이론**에서는 이러한 법 제정을 사회구조가 균형을 이루는 과정으로 설명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갈등이론**에서는 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값싼 노동력에 근거하여 생존하는 소규모 기업이 대거 퇴출되었다는 점, 개혁 운동의 많은 지도자들이 대기업 사장의 부인들이었고 운동 기금도 대기업의 기부에 많이 의존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 가지 관점이 예시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말하며 뚜렷하게 비교·대조되고 있습니다. 관습이론은 미국의 전통적 관습을 확인하는 움직임이다. / 구조이론은 아동 노동 보호법은 사회 구조의 균형(사회 전체의 필요)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 갈등이론은 지배층의 이득을 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워낙 명확하게 드러나있어서 각각을 혼동하지만 않고 독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 상호 간의 비판도 만만찮다. **관습이론**은 비합리적이거나 억압적인 사회·문화적 관행을 합리화해 준다는 공격을 받는다. **구조이론**은 법의 존재 이유가 사회적 필요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고, **갈등이론**은 편향적인 시각으로 흐를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받는다.

각각의 이론이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을 얘기하며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위의 예시를 독해할 때처럼 각각의 이론을 혼동하지만 않고 독해한다면 크게 부담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이 독해가 가능합니다.

1일차 문제 해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 ①

관습이론은 비합리적이거나 억압적인 사회 문화적 관행을 합리화해 준다는 공격을 받는다.라고 마지막 문단에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억압적 체계라는 말과 거의 동어라는 것은 모두들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선지

② 법이 발생하는 기원은, 사회의 관습을 재천명 하는 것이 법이되는 거라고 보는 관습이론의 관점에 가깝겠죠? 오히려 법이 그런 모습을 띄는 이유 = 구조이론의 주장인 사회 구조의 결과물로 사회 구조의 전체적인 안정을 위해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③ 규범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규범을 설명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공격받는다? 이건 규범이론이 관습이론의 오류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④ 갈등이론은 법이 지배층의 이익을 영위하는 수단에서 발생 된다고 보지 대립을 해소하는 역할에서 법의 기원을 찾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선지를 고르신 분이 있다면, 지문 내용이 주가 된 판단이 아닌 갈등이 있으면 해소한다가 같은 개인적인 주관 위주로 내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⑤ 전체로서의 사회적 이익을 유지하는 기능적 체계는 구조이론에 적합한 설명입니다. 갈등이론은 지배층의 이익을 유지하는 기능이라고 판단하겠죠.

tip - 결국은 독해력

애초에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세 이론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많은 수험생들이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의 개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니 정확하게 글을 구분하며 읽어야 한다 그 정도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구분하며 읽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할 사항이며 결국 각각의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독해를 했는지 이 점이 성패를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2. ㉠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석 : 구조이론의 관점에서 A와 B가 상이한 법을 가지고 있는 이유 → 분배의 방식, 조직의 원리 등의 사회구조의 차이를 보이고, 이렇게 탄생한 법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성된 것임.

2번 답 : ①

A의 사법위원회가 사적 소유제의 도입에 따른 빈부 격차를 고착시킨 역할을 수행했다. =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영위하는 수단. 바로 감이 오시죠? 이 내용은 구조이론의 관점이 아닌, 갈등이론의 관점입니다. 답을 고르기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선지

② B의 공동생활 방식과 같은 사회구조로 인한 영향으로 천명되지 관습도 법처럼 지켜졌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조이론은 법은 구조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책이 필요하기에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B는 이미 구성원 사이에 친밀감이 높고 집단 규범을 위반하면 즉시 제재가 가능한 사회구조로 인해 관습만으로도 구조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③ 구조이론을 그냥 복붙한 수준입니다. 구조이론에서는 사회 구조들이 법의 모습을 결정하는 인자가 되기에 구조이론은 A와 B가 사회조직과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가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④ 구조이론에 따르면 법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성문화된 규칙이 발전한 A사회는 구조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성문화된 규칙이 그들의 사회구조인 독립적인 생활방식 규율에 적합한, 사회 전

체가 필요한 방식이라 생각되어 발전되었고, 그와 대비되는 비공식적 규율은 A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4번 선지와 표현만 다르지 거의 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그 사회구조의 전체적인 이익에 적합한 = 갈등을 억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을 만들었다는 적합한 내용입니다.

3. [관습이론]에 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 ③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성문법)이 제정되어 한국 사회에서 차별의 관행(관행)의 전환을 이끌었다? 관습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부분입니다. 관습이론은 명확하게 성문법이 관습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끝날 때 문단 끝에 추가적인 정보가 붙는 경우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 꼭 유의하시고 문장, 문단 글을 끝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선지

① 구조이론은 사회구조의 결과물로 법이 생성된다고 보고, 갈등이론은 지배계층에 이득을 위해 법이 생성된다고 보고 관습이론은 관습이 제도화되며 법이 생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 주장 모두 천부적으로, 자연적으로 법이 발생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이건 너무 대놓고 그냥 각각의 정의를 설명해줬습니다.

④ 과거에는 남계 혈통 중심의 호주제가 현재 변화된 가족문화에 맞지 않아. 이 말은 즉 관습 자체가 남계혈통 중심에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이 변한 것에 맞게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결국 사회의 관습에 어긋나는 법은 성문화되어도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관습이론은 이 사례를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⑤ 허례허식(관습)을 일소화 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지만, 국민들의 관습은 유지되었고 1999년 법이 폐지되었다. 4번 선지와 같은 내용을 다른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사회 관습에 어긋나는 법은 성문화되어도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평

이 지문의 경우 병렬적인 구조 자체도 뚜렷하고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독해 시, 각각의 이론을 구분하며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어지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조에만 머물렀다면, 문제를 풀 때 꽤나 어려움을 느꼈을 글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각각의 개념이 등장했을 때 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갔나, 각각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세 가지 이론이 워낙 차이가 명확해서 구분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이지만, 대충 구분한다고 생각만 하고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오히려 셋을 구분하는 부분에서 독해가 붕 떠 독해 속도가 느려지고 문제 풀이 시 더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구조에 맞는 독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기본적인 미시독해가 될 때 구조를 써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2일차 지문 해설

서기 2세기 중엽, 로마의 속주 출신 그리스인 **아리스티데스**는 로마 통치의 특징을 묘사하는 「로마 송사(頌辭)」라는 연설문을 남긴다. 이 글은 로마 제국에 대한 동시대인의 증언이자, 정복자가 아닌 속주, 즉 식민지 지식인의 논평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아리스티데스의 로마 송사는 로마 제국에 대한 동시대인의 증언+식민지 지식인의 논평이다. 딱 글에 주어진대로 객관적인 정보를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통치 원리에 대한 **그(아리스티데스)의 설명**은 정작 로마인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그(아리스티데스)는 '보편 시민'을 구현하려는 시민권 정책의 개방성 원리를 칭찬하지만, 로마인은 그 정책 배후의 이념을 숙고하지 않았다.** 로마인에게 속주 엘리트들에 대한 시민권 개방은 분리 통치를 위한 '지배 비결'이었을 뿐이다.

식민지 지식인인 아리스티데스의 로마 통치에 대한 설명은 로마인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 아리스티데스는 시민권 정책이 보편 시민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칭찬하지만 실상은 로마인들에게 그저 지배 비결일 뿐이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첫 문단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글이 첫 문단에 글의 진행 방향과 핵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첫 문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글의 첫 문단으로는 글이 어떻게 진행될지 감을 잡는 게 쉽지 않고 약간 붕 뜬 독해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어떤 글이 나올지 알 수 없으니 낯선 구조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선 필연적으로 다양한 지문을 미리 접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티데스는 로마의 정책을 이념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었다.** 이미 300여 년간 그리스 지식인들은 로마 권력의 속성과 그리스인이 로마 통치에 관해 취할 태도에 대한 담론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우선 로마의 지배에 들어간 기원전 2세기 중엽 이래 그리스 지식인들은 그리스인의 대처 자세에 대해 고민했다.

아리스티데스가 왜 로마인과 다른 설명을 했는지(로마의 정책을 이념의 측면에서 바라봄)가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그리스 지식인들은 '로마 권력의 속성'과 '그리스인이 로마 통치에 관해 취할 태도'에 대해 담론을 지속해왔다는 글의 핵심과 진행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기원전 2세기 그리스 지식인들이 그리스인의 대처 자세에 대한 고민이 제시됩니다.

즉 이 글은 로마 권력의 속성 / 로마 통치에 대한 그리스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 글이 전개되고, 그것을 구분하며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독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문의 모든 내용은 중요하지만, 핵심에 초점을 맞추며 글을 독해하는 것과, 핵심 없이 모든 내용을 파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독해는 이해와 속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이(로마 권력의 속성과 로마 통치에 관해 취할 태도)를 논의한 이들은 기원전 2~1세기의 철학자 파나이티오스와 포세이도니오스였다. 그들의 논리는 최선자(最善者)의 지배가 약자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리스인은 로마인에 대해 지배의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 순응주의를 드러냈다

파나이티오스와 포세이도니오스의 최선자의 지배가 약자에게 유익하다는 주장은 최선자=로마인, 약자=그리스인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범주화는 글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습관이니 의식적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최선자인 로마인이 약자인 그리스인을 지배하는 것이 유익하며 로마 통치에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 순응주의라는 것을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과연 로마인은 최선자였던가? 속주에 배치된 군 지휘관

과 관리들에 대한 속주민의 고발이 잦았던 당시 현실에서 보면 그 대답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둘의 판단과 다르게 로마인은 최선자가 아니라 는 뉴앙스로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앙스처럼 우리도 파나이티오스와 포세이도니오스의 시기에 로마 통치와 속주민들의 갈등이 잦았다 정도는 독해 시 꼭 인식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서기 1세기 초 로마의 정체(政體)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뀐 뒤, 그때까지 통치하기보다는 그저 점령해 온 지역에서 실질적 행정이 시작되었다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서기 1세기 초에 로마의 정체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었다. 즉 기원전 2세기 = 공화정 / 서기 1세기 초 이후 = 제정. 이후 선지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문장에서 이것까지 잡고 가지 못했다면 첫 문제를 푸는데 공화정 말기와 제정 초기를 구분하느라 시간을 낭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꼭 시기를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면 꼭 그 시기에 대한 표현의 범주화를 정확하게 이루는 독해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로마의 통치가 공고해지고, 로마가 가져온 평화의 혜택이 자명해졌다. 그리스 문화를 존중하는 로마 황제들의 배려가 늘어가면서, 그리스인의 자유 상실감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제 그들(그리스 지식인)은 문학과 철학에서의 문화 권력을 인정받는 대가로 권력과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를 ㉡ 타협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로마의 통치가 제정으로 바뀐 뒤 그리스 지식인들은 그리스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늘고 그리스인의 자유 상실감은 약화된, 평화와 혜택이 자명해진 현실에서 권력과 타협을 하는 ㉡ 타협주의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예컨대 서기 1세기 초의 역사가 **디오니시우스**는 실체적 근거도 없이 로마인의 뿌리는 사실 그리스인이라며 일종의 동조론(同祖論)을 제기했다. 그렇지만 이는 로마인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 그리스인을 위한 타협의 신호였다. 정복자로 성공한 로마인을 불편하게 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거의 같은 시기의 수사학자 **디오**는 황제들이 타락하지 않으면, 로마가 관대한 통치를 펴고 그리스인의 이상인 '화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직까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물들의 주장을 통해 타협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동조론을 주장하였지만, 그것은 로마보다 그리스인을 위한 동조론이었고, **디오**는 로마가 그리스인의 이상인 화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생각, 타협주의의 생각 =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을 통해 정리해주며 타협주의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 됩니다.

즉 이후 문제 풀이 시에도 타협주의, 디오니시우스, 디오는 단순히 로마에 흡수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리스티데스의 시기에 이르면 속주 지식인들의 기조는 ㉢ 동화주의로 변했다.

아리스티데스의 시기부터 타협주의가 아닌 동화주의로 변했다. 동화주의의 뜻을 함부로 예단하는 독해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것으로 둘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역사가 **아피아누스**는 제정이 안정과 평화, 풍요를 안겨 주었다고 보았고, 그런 의미에서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전환된 것을 축복이라고 묘사했다. 이는 그가 아직도 옛 정체에 대한 향수를 짙게 간직하고 있던 로마의 전통적 지배 계층보다 새로운 체제와 '일체감'을 더 지녔음을 보여 준다.

앞선 글의 진행 방식과 유사하게 개념이 제시되고 그에 대해 인물들의 주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00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피아누스는 로마의 새로운 체제(제정)에 옛 정체(공화정)를 그리워하던 로마인들보다 일체감(동화)을 느꼈다. 이 정도를 정리하고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티데스**는 「로마 송사」에서 그리스에 대한 혜택과 배려를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제국 시민으로서의 관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제국 통치가 가져다 준 평화의 전망 속에서 그리스의 지역 엘리트들은 더 이상 통치할 권리를 두고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한다. 요컨대 **아리스티데스**는 식민지 엘리트들의 탈정치화를 상정하고 있다. 그는 모든 속주 도시의 정치적 자립성이 세계 제국 안에서 소멸되는 상태를 꿈꾸는 것이다.

아리스티데스는 앞선 타협주의가 그리스의 문화를 존중하는 혜택과 배려를 논했던 것과 달리 제국 시민(로마인)으로서의 관점을 강조합니다. 모든 속주 도시(그리스)의 정치적 자립성이 세계 제국(로마)안에서 소멸되는 상태를 꿈꾸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독해 시 각각의 뜻을 연결하는 범주화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동화주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역시 생각한대로 타협주의와 다른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독해 시 타협주의와 동화주의를 대충 다르다 정도가 아닌 타협주의는 그리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동화주의는 그렇지 않다 수준까지는 구분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게다가 그(**아리스티데스**)가 보기에 로마는 이전의 다른 제국인 페르시아에 비해 행정 조직과 지배 이념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지녔다. 로마의 행정 조직은 거대하지만 동시에 체계적인 점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 체계적인 면이란 곧 통치의 탈인격성을 가리키며, 바로 페르시아 왕의 전횡과 대척을 이루는 것이다.

아리스티데스가 로마의 통치는 거대하고, 체계적인, 탈인격성의 통치를 보인다고 하며 이전의 다른 제국인 페르시아와 대척을 이룬다는 내용으로 글의 후반부라 집중력이 떨어졌을 수 있지만, 크게 무리되는 수준의 내용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로마 송사」는 '팍스 로마나'가 절정에 달해 있던 시기(동화주의가 성행한 시기) 2세기 중엽의 로마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동조하며 결국 동화되었던 그리스 지식인들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글의 초반부의 제시된 로마 송사는 동화주의가 성행한 시기 = 팍스로마나 시기에 로마에 동화되었던 그리스 지식인들의 자세를 제시하며, 동화주의에 대해 재진술 해주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tip - 다양한 인물 / 개념어의 등장?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보량이 적더라도 다양한 인물과 개념어가 나오면 그 나름대로 독해 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 지문이라면 지문 내용을 완벽하게 구조화해서 독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필연적으로 다시 지문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이때 돌아왔을 때 빠르게 정보를 찾기 위해 독해 시 인물 / 개념어에 잘 보이게 **인물이름** 표시 하든, △ ○ ☆로 표시하든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표시하시면서 독해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독해 시 밑줄을 남발하거나 기호를 남발하여 독해보다 기호가 주가 되는 상황은 발생하면 안되지만, 기호의 단순 남발이 아닌 본인이 틀에 맞는 기호 사용은 문제풀이에 효율성을 올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글을 100% 완벽하게 독해해서 지문으로 돌아오지 않고 글을 읽는 것이지만, 그것이 힘들다는 것은 우리도 모두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자신의 대비책을 잡는 것도 '시험'을 보기 위한 본인의 능력입니다.

2일차 문제 해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답 : ④

제정 초기(서기 1세기 초)에는 그리스 문화를 존중하는 로마 황제들의 배려가 늘어났고, 타협주의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그리스 지식인)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리스의 문화 존중을 바탕으로 그리스 지식인들이 자존감을 지켰다는 말은 타당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 페르시아와 달리 전횡성을 극복한 것은 공화정 말기가 아닌 ‘팍스로마나’ 시점입니다. 각 시기를 잘 구분했다면 크게 문제될 선지는 아닙니다.

② 지문에서 지휘관과 관리들에 대한 속주민들의 고발이 잦았다고 제시되어 있기에 이견을 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동화주의를 설명할 때 아피아누스는 옛 정체에 향수를 질게 간직하고 있던 로마의 전통적 지배 계층보다 새로운 체제와 일체감을 보인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옛 정체에 향수를 질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과 새로운 체제를 환영했다는 것이 상충된다는 점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부분으로, 로마의 전통적 지배 계층이 새로운 체제를 환영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⑤ 아리스티데스가 보편시민을 구현하는 시민권 정책을 칭찬했지만 그 배후의 이념을 숙고하지 않았고, 시민권 정책은 분리 통치를 위한 지배 비결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민권 정책은 보편 시민 양성이라는 통치원리가 아닌 분리 통치를 위한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tip - 지문 표현 ≠ 선지 표현

지문에서 쓰인 표현을 그대로 선지에 넣으면 단순 서칭으로도 문제를 가볍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의 경우 공화정 말기, 제정 초기가 언제를 뜻하는지 등을 파악하지 않고 독해가 진행됐다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현 추세와 같이 선지에서 지문 표현을 그대로 복붙하는 것이 아닌, 같은 범주의 표현으로 제시되는 문제는 글을 읽을 때 범주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시간 낭비 없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순응주의 ㉡ : 타협주의 ㉢ : 동화주의

정답 : ⑤

타협주의는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뀐 뒤 그리스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자유 상실감이 약화 되었고, 그를 인정받는 대가로 권력과 타협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즉 이전과는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자유 상실감의 약화는 정체 변화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피아누스가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전환된 것을 축복이라 묘사하고, 아리스티데스가 제국 통치가 가져다준 평화의 전망을 언급하는 것에서 정체 변화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응주의의 경우 정체 변화(공화정→제정)로 넘어간 시기가 아닌 공화정 시기에 담론입니다. 즉 정체 ‘변화’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순응주의는 ‘변화’가 있던 시기의 담론이 아니니까요. 아마 정체와 정체 변화를 뭉뚱그려 읽으셨다면 정답을 고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선지

① 순응주의는 로마인에 대해 지배의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배의 정당성을 윤리적 정당성과 일치시

키는 논리를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타협주의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제시되어 있고, 이는 타협주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이 선지를 고르셨다면 타협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해 자체를 실패하신 부분입니다.

③ 동화주의는 로마의 행정조직은 거대하지만 동시에 체계적이라고 제시합니다. 이 정도면 3번 선지는 무난하게 적절하다는 판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④ 타협주의를 설명할 때 지문에서는 로마가 가져온 평화와 혜택(문화 존중)으로 그리스인들의 자유 상실감이 약화되었다고 제시되어 있고 그들(그리스인)은 문화 권력을 인정받는 대가로 권력과 타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타협주의는 자유보다 평화와 안전을 더 중시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화주의에서 아피아누스는 제정이 안정과 평화 풍요를 안겨주었다고 제시하고, 아리스티데스는 제국 통치가 가져다준 평화에서 그리스 지역 엘리트들은 통치 권리로 싸우지 않는다, 모든 속주도시(그리스)의 정치적 자립성이 세계 제국(로마) 안에서 소멸되는 것을 꿈꾸는 것으로 자유보다 평화와 안정을 중시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tip - 언어에 대한 민감함

과거 수능에서 %와 %p의 차이로 인해 상당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와 %p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정체’와 ‘로마의 정체 변화’는 분명히 구분해야 하지만, 선지를 대충 읽거나 급하게 읽을 때 우리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평소에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 시험장에서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의식하고 선지를 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언어에 대한 민감함을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정치가는 자신과 출신 도시가 로마 통치자들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로마의 고위 인사 중에 친구를 가지도록 해야만 한다. 로마인은 친구들의 정치적 이익을 증대시켜 주는데 열심이기 때문이다. 우리(그리스 정치인)가 거물들과의 우정에서 이득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이점이 우리 도시(그리스 도시)의 복지에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좋다. …… 우리 그리스 도시들이 누리는 축복들인 평화, 번영, 풍요, 늘어난 인구, 질서, 화합을 생각해 보라. 그리스인이 이민족들과 싸우던 모든 전쟁은 자취를 감추었다. 자유에 관한 한, 우리 도시 주민들은 통치자들이 허용해 주는 커다란 몫을 누리고 있다. 아마 그 이상의 자유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이다.

- 플루타르코스, 「정치가 지망생을 위한 권고」

정답 : ①

<보기>는 정치가 지망생을 위한 권고, 즉 그리스 정치 지망생을 위한 권고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그리스인)가 거물들과의 우정에서 이득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이점이 우리 도시(그리스 도시)에 복지에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좋다. → 그리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 정체성을 잃었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로마가 관대한 통치를 펴고 그리스인의 이상인 ‘화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리스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디오와 같은 자세를 견지한다고 보는 것은 적합합니다.

나머지 선지

② 제시된 내용들을 <보기>에서 거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통치를 환영한 아피아누스는 아리스티데스와 같은 팍스로마나 시기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우리 도시, 우리 그리스라고 말하며 로마에 완전히 동화된 것이 아닌 그리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기>의 주장을 아피아누스와 동시대인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③ 시민권 확대에 주목한 아리스티데스는 로마의 행정조직은 거대하고 체계적이라고 말하며 이때 체계는 통치의 탈인격성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보기>에서 로마가 친구들의 정치적 이익을 지켜준다하는 것은 탈인격적인 통치라기보다는 인격적인 통치에 가깝습니다. 탈인격적인 통치가 친구의 정치적 이익을 증대시켜준다는 것은 모순임으로 <보기>는 아리스티데스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고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④ 그리스인이 이민족과 싸우던 전쟁이 사라진 것도 맞고 로마인과 그리스인이 한 뿌리를 가졌다고 보는 디오니시우스의 주장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인이 이민족과 싸우던 전쟁이 사라진 것이 디오니시우스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둘다 맞는 말이지만 논리적 결함을 틀어 오답을 만든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보기>가 통치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준 변명과 질서를 상기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파나이티오스와 포세이도니오스의 시기는 통치자인 지휘관과 관리들에 대한 속주민의 고발이 잦았던 시기이고 변명과 질서가 드러난 것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로마의 정체가 변화한 시기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와 그들의 견해를 동시대의 견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총평

꽤 까다로운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인 어려움보다는 '단어'에 대한 어려움,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한 범주화, 구조화 독해 자체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천재가 아닌 평범한 범인이라면 3명 이상(사람이 아닌 개념어일 때도 마찬가지로)이 나오는 지문에서는 각각에 대한 범주화와 체계적인 구조화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러한 형식의 지문은 반드시 나오고 결국 우리는 이것을 시험장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 평소에 의식적으로 범주화, 구조화에 신경쓰지 않고 독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일차 지문 해설

첨단 소재 분야의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전자 현미경이 필요하다.

전자 현미경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첫 문장입니다. 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전자 현미경이 키워드인가? 정도를 생각하고 독해를 시작합니다.

전자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다만 광학 현미경은 관찰의 매체로 가시광선을 사용하고 유리 렌즈로 빛을 집속하는 반면, 전자 현미경은 전자빔을 사용하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빔을 집속한다는 차이가 있다.

전자 현미경에 비교 대상으로 광학 현미경이 제시되며 글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의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공통점) / 광학 현미경 : 관찰 매체 = 가시광선, 유리 렌즈로 빛 집속 / 전자 현미경 : 전자빔 사용, 코일 발생 자기장으로 전자빔 집속
첫 문단부터 주어진 정보가 상당히 많고 공대 계열이 아닌 사람에게는 낯선 용어가 등장합니다. 용어의 낯설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낯설음에 독해 시 쫓면 안됩니다. 낯설더라도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하며 내려가야 합니다.

광학 현미경은 시료에 가시광선을 비추고 시료의 각 점에서 산란된 빛을 렌즈로 집속하여 상(像)을 만드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세한 구조를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광학 현미경은 시료에 관찰 매체(가시광선)를 비추고 그로 산란된 빛을 집속하여 상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계,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지문과 문제에서 항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크기가 매우 작은 점광원에서 나온 빛은 렌즈를 통과하면서 회절 현상에 의해 광원보다 더 큰 크기를 가지는 원형의 간섭무늬를 형성하는데 이를 '에어리 원반'이라고 부른다.

한계를 바로 말하지 않고 에어리 원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에어리 원반이 광학 현미경이 미세한 구조를 관찰하는 한계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이겠죠. 즉 갑자기 뜬금없이 에어리 원반이 왜 나오지? 라고 글을 읽는데 어색함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문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없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만약 시료 위의 일정한 거리에 있는 두 점에서 출발한 빛이 렌즈를 통과할 경우 스크린 위에 두 개의 에어리 원반이 만들어지게 되며, 이 두 점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두 에어리 원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원반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아지면 관찰자는 더 이상 두 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점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한계점에서 시료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해상도'라 부른다.

시료 위에서 산란된 두 빛 → 렌즈 통과 → 에어리 원반 형성 → 두 점의 거리가 에어리 원반의 크기에 비해 너무 가까우면 두 점을 구분하지 못함. / 이 한계점에서 시료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 해상도

에어리 원반이 발생하는 '과정'과 해상도의 정의가 등장합니다. 정보량이 뽀뽀하지만 차분하게 정리하며 읽으면 못 읽을 수준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보량이 넘치는 글은 차라리 차분하게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고요? 고득점을 맞기 위해, 이런 지문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다른 쉬운 지문을 여유롭게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미경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의 해상도는 사용하는 파동의 파장, 렌즈의 초점 거리에 비례하며 렌즈의 직경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사용하는 파장이 짧을수록 최소 해상도가 작아지며, 더 또렷한 상을 얻을 수 있다.

최소의 해상도 = 파장, 렌즈 초점 거리와 비례 / 렌즈 직경 반비례

해상도 ↓ → 또렷한 상

비례 관계가 시작됩니다. 비례 관계는 누구나 출제된다는 것을 알지만 문제로 출제될 때 항상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항상 비례 관계가 나오면 미리 정리를 하며 독해를 하든, 최소한 체크 정도의 대비는 필요합니다. 본인이 정말 천재라서 그냥 읽고 비례 관계가 다 정리된다면 그냥 내려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정리를 하고 내려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광학 현미경의 경우 파장이 가장 짧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더라도 그 해상도는 파장의 약 절반인 200 nm보다 작아질 수가 없다.

해상도의 관련된 비례 관계를 설명한 뒤 광학 현미경의 해상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됩니다. 앞선 비례 관계에 따라 광학 현미경이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면 해상도가 작아지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작아져도 200nm보다는 작아질 수 없다는 크게 무리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반면 전자 현미경에 사용되는 전자빔의 전자'도'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입자-파동 이중성'에 따라 파동처럼 행동하는데 이 파동을 '드브로이 물질파'라고 한다

이제 전자 현미경의 해상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광학 현미경의 경우처럼 바로 해당 내용이 나오지 않고 드브로이 물질파 관련 얘기가 나옵니다. 전자 현미경 해상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앞선 에어리 원반의 진행 흐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전자 현미경에서 사용되는 전자도 파동이고 이것을 드브로이 물질파라고 지칭하는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 이 문장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얘기는 첫 번째 문제 해설할 때 하도록 하고 일단 독해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물질파의 파장은 입자의 질량과 속도의 곱인 운동량에 반비례하는데 전자 현미경에서 가속 전압이 클수록 전자의 속도가 크고 수십 kV의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대략 0.01 nm 정도이다. 하지만 전자 현미경의 렌즈의 성능이 좋지 않아 해상도는 보통 수 nm이다.

물질파의 파장 : 운동량(입자의 질량 x 속도)와 반비례

가속 전압 ↑ → 전자 속도 ↑ / 이렇게 비례 관계가 정리되면 수십만 kV의 전압으로 가속된 물질파의 파장이 0.01nm으로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셨을 겁니다. 비례 관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리만 하고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만, 날림으로 그냥 읽으시면 특히 더 뒤에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 현미경의 렌즈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사용하여 전자의 이동 경로를 휘게 하여 전자를 모아 준다. 전하를 띤 입자가 자기장 영역을 통과할 때 속도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데 그 방향은 자기장에 대해 수직이다. 전자 렌즈는 코일을 적절히 배치하여 특별한 형태의 자기장을 발생시켜 렌즈를 통과하는 전자가 렌즈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도록 만든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증가시키면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고 전자가 받는 힘이 커져 전자빔이 더 많이 휘어지면서 초점 거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가 작아지면 현미경의 배율은 커진다.

전자 현미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과정식 서술과 비례 관계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전자 현미경의 렌즈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를 모음 → 전하 띠 입자 자기장 영역 통과 이때 자기장 세기에 비례하는 힘을 수직으로 받음

이렇게 힘을 받는 과정을 서술한 뒤, 그를 이용하여 렌즈를 통과하는 전자가 중심 방향에 힘을 받도록 설계함을 알려줍니다.

이후 코일 흐르는 전류 ↑ → 자기장 세기 ↑ → 전자 받는 힘 ↑ → 전자빔 휘어짐 ↑ → 초점 거리 ↓ / 대물렌즈 초점거리 ↓ → 현미경 배율 ↑의 연쇄적인 비례 관계가 제시됩니다. 이렇게 연쇄적인 비례 관계가 나오면 어떤 걸 조합해도 그에 맞는 비례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광학 현미경**에서는 배율을 바꿀 때 대물렌즈를 교체하지만 **전자 현미경**에서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여 일정 범위 안에서 배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렌즈의 중심과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전자가 받는 힘을 적절히 조절하여 한 점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광학 현미경에 비해** 초점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광학 현미경 배율 변환 시 대물렌즈를 교체하지만, 전자 현미경은 코일의 전류를 조절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배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초점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고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에서 둘을 직접적으로 비교·대조 해주면 우리도 그에 맞게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를 고려하며 독해를 했으면 됩니다.

전자 현미경은 고전압으로 가속된 전자빔을 사용하므로 현미경의 내부는 기압이 대기압의 $1/10^{10}$ 이하인 진공 상태여야 한다. 전자는 공기와 충돌하면 에너지가 소실되거나 굴절되는 등 원하는 대로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절연체 시료를 관찰할 때 전자빔의 전자가 시료에 축적되어 전자빔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통 절연체 시료의 표면을 금 또는 백금 등의 도체로 얇게 코팅하여 사용한다.

또 전자 현미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됩니다. 전자 현미경의 내부는 기압이 대기압의 $1/10^{10}$ 이하인 진공 상태여야 하고, 이는 전자가 공기와 충돌하면 제어가 어렵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료가 축적되면 이미지의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됩니다. 대놓고 지문에서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적어놓은 것만이 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압이 낮아야 한다. 시료에 축적된 전자가 적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은근한 비례 관계 또한 선지로 정말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광학 현미경에서는 실제의 상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전자 현미경**에서는 시료에서 산란된 전자의 물질파를 검출기에 집속하여 상이 맺힌 지점에서 전자의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형태를 디지털 영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전자 현미경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한 검출기 및 주변 기기를 장착하여 전자 현미경의 응용 분야를 확장할 수 있다.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의 특징을 또한번 대조한 뒤 전자 현미경의 전망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둘의 대조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님으로 글의 막판에 집중을 못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난하게 독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ip - 모든 비교·대조가 같은 것은 아니다.
비교·대조되는 두 쌍이 나와서 글이 전개될 때 항상 두 대상이 동등한 위치로 서술되지는 않습니다. a와 b가 동등한 위치에서 글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a라는 핵심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b를 등장시키는 경우 또한 빈번히 등장합니다.
이 지문의 경우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을 비교하고 있지만, 광학 현미경은 전자 현미경의 특징을 비교하며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문에서 광학 현미경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 현미경이 글의 핵심이고 광학 현미경은 대조를 위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하여 문제를 푸는 것과 그냥 읽어 내려갔을 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항상 글의 핵심을 파악하며 그에 맞게 정보를 구조화하며 글을 읽는 것을 연습하시길 권장합니다.

3일차 지문 해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정답 : ⑤

광학 현미경은 시료에서 가시광선을 비추고 시료의 각 점에서 산란된 빛을 렌즈로 집속하여 상을 만듭니다. 전자 현미경은 시료에서 산란된 전자의 물질파를 검출기에 집속하여 상이 맺힌 지점에서 전자의 분포를 측정합니다. 이와 같이 제시된 내용을 통해 두 현미경 모두 시료에서 산란된(산란된 빛, 산란된 전자) 파동을 관찰하여 상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ip - 보조사에 대한 민감함

만약 빛과 전자가 파동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되시는 분들은 **전자 '도'**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입자-파동 이중성'에 따라 파동처럼 행동하는데 이 파동을 '드브로이 물질파'라고 한다. 문장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선 이 문장을 통해 물질파(전자)는 파동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도'라고 표현한 것은 앞선 내용도 파동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공계열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인문계열 분들은 여기서 이걸 못잡았다면 첫 문제 답을 고르지 못했거나 골랐어도 약간 째짤하게 답을 고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능, leet 등의 시험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몇 번의 검토를 거쳐 만든 완성된 글입니다. 그런 글에서는 보조사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독해 시 ~만. ~도와 같은 보조사의 뜻을 신경 쓰시면서 독해를 이어가시는 습관을 들이기를 권장합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일반적으로 현미경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의 해상도는 사용하는 파동의 파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제시되어 있고, 광학 현미경의 경우 파장이 가장 짧은 가시광선을 사용해도 해상도가 200nm보다 작아질 수 없다는 말은 광학 현미경의 해상도가 200nm보다 작아질 수는 없지만, 시료에 비추는 빛의 파장에 의존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선지를 고르셨다면 광학 현미경의 해상도가 200nm보다 작아질 수 없다는 것에서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② : 나을만한 선지가 나왔습니다. 전자 현미경의 내부는 기압이 대기압의 $1/10^{10}$ 인 진공 상태여야 하고, 전자는 공기와 충돌하면 제어가 어렵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내부의 기압이 높으면 선명한 상을 얻는 것이 오히려 제한됩니다.

③ : 전자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을 대조할 때 전자 현미경은 렌즈의 중심과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전자가 받는 힘들 적절히 조절하여 한 점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해나 추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그냥 지문 복붙 수준의 선지입니다.

④ : 2번 선지와 유사한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료를 관찰할 때 전자빔의 전자가 시료에 축적되어 이미지가 외곡될 수 있다고 대놓고 적혀있습니다. 시료 표면에 축적된 전자가 많을수록 상의 왜곡이 줄어든다는 건 명백히 틀린 선지고, 복붙 수준 선지입니다. / 정답 선지를 제외하면 엄청난 이해나 추론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경우 답을 고르긴 쉬운 것이 일반적이거나, 지문 자체의 난도가 높아 어려움을 느꼈을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 윗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전자 현미경의 특성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답 : ②

지문 비례 관계 정리

파장&렌즈 초점거리 $\uparrow \leftrightarrow$ 최소 해상도 \uparrow
 운동량(질량 \times 속도) $\downarrow \leftrightarrow$ 물질파의 파장 \uparrow
 가속전압 $\uparrow \leftrightarrow$ 전자 속도 \uparrow
 전하를 띤 입자 속도&자기장 세기 $\uparrow \leftrightarrow$ 자기장 영역 통과 시 받는 힘 \uparrow
 코일 전류 $\uparrow \rightarrow$ 자기장 세기 $\uparrow \leftrightarrow$ 전자가 받는 힘 $\uparrow \rightarrow$ 초점거리 \downarrow

ㄱ.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길수록 전자가 전자 렌즈를 지날 때 더 큰 힘을 받는다.

사용된 비례 관계

운동량(질량 \times 속도) $\downarrow \rightarrow$ 물질파의 파장 \uparrow
 전하를 띤 입자 속도&자기장 세기 $\uparrow \rightarrow$ 자기장 영역 통과 시 받는 힘 \uparrow

물질파 파장이 길다는 것은 운동량이 작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이 작은 전자가 전자 렌즈를 지나간다면 자기장 영역 통과 시 받는 힘이 적습니다.

ㄴ. 전자의 가속 전압을 증가시키면 상에서 에어리 원반의 크기를 더 작게 할 수 있다.

사용된 비례 관계

가속전압 $\uparrow \rightarrow$ 전자 속도 \uparrow
 전하를 띤 입자 속도&자기장 세기 $\uparrow \rightarrow$ 자기장 영역 통과 시 받는 힘 \uparrow
 코일 전류 $\uparrow \rightarrow$ 자기장 세기 $\uparrow \rightarrow$ 전자가 받는 힘 $\uparrow \rightarrow$ 초점거리 \downarrow
 파장&렌즈 초점거리 $\uparrow \rightarrow$ 최소 해상도 \uparrow

전자의 가속 전압이 증가하면 전자 속도가 오르고, 자기장 영역 통과 시 받는 힘이 늘어납니다. 이는 초점거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초점거리의 감소는 최소 해상도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때 해상도가 작다는 것은 더 또렷한 상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에어리 원반이 원반의 크기에 비해 두 원반의 중심 사이 거리가 너무 작아져 두 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정확한 상을 얻을 수 있는 상황, 에어리 원반이 서로 구분 가능하게 크기가 작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전자의 가속 전압을 증가시키면 해상도가 낮아지고 이는 에어리 원반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장이 아닌 상황이나 사후적인 해설에서는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것이 약간 부담된다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이 정도 추론은 약간 수준이 아닌 상당한 고난도 추론입니다. 아마 실전에서는 λ 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푸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판단이 쉬운 γ 과 α 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 λ 을 고르는 과정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ㄷ. 전자 렌즈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키면 상의 해상도를 더 작게 할 수 있다.

사용된 비례 관계

코일 전류 $\uparrow \rightarrow$ 자기장 세기 $\uparrow \rightarrow$ 전자가 받는 힘 $\uparrow \rightarrow$ 초점거리 \downarrow
 파장&렌즈 초점거리 $\uparrow \rightarrow$ 최소 해상도 \upa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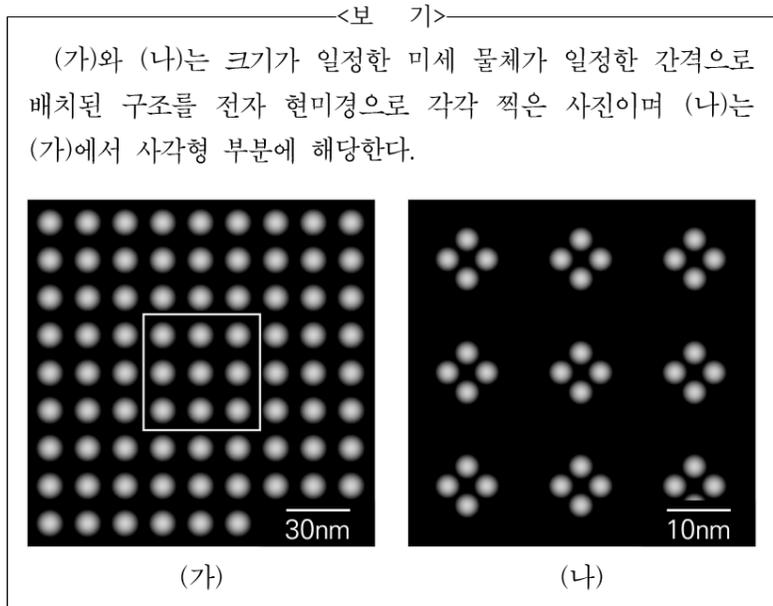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키면 초점거리가 늘어나고, 초점거리가 늘어나면 해상도는 늘어납니다.

tip - 너무 쉬운 비례 관계는 희망사항이다.

과거처럼 $a \uparrow \rightarrow b \uparrow$ 수준의 단순한 비례 관계로만 지문이 서술되고 문제화되는 경우는 이제 수험생의 희망사항 수준입니다. 최소한 a,b,c 3개 이상의 관계가 나오고 이 관계도 단순히 한 문장, 문단에 국한되지 않고 앞 문단에서 말한 비례 관계와 뒷 문단의 비례 관계가 연결되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지문 이해도, 문제를 풀 수도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게 현재 시험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게 비례 관계를 대할 때 당장 주어진 문장에만 국한되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 앞서 제시된 정보와의 연결을 통한 관계의 확장까지 이어나가는 것을 연습하시길 권장합니다.

3.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분석
 앞선 문제에서 확인한 것처럼 해상도가 낮다는 것은 에어리 원반의 크기가 작다는 것이고 <보기>의 그림에서 (가)의 해상도에서는 9개의 미세 물체로 보이지만, (나)의 해상도에서는 9개의 미세 물체가 각각 4개의 미세 물체로 나뉘어 보이는 것에서 (나)의 해상도가 (가)의 해상도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앞서 정리한 비례 관계와 선지를 읽어가며 파악해보도록 합시다.

지문 비례 관계 정리

파장&렌즈 초점거리 ↑ ↔ 최소 해상도 ↑
 운동량(질량×속도) ↓ ↔ 물질파의 파장 ↑
 가속전압 ↑ ↔ 전자 속도 ↑
 전하를 띤 입자 속도&자기장 세기 ↑ ↔ 자기장 영역 통과 시 받는 힘 ↑
 코일 전류 ↑ → 자기장 세기 ↑ ↔ 전자가 받는 힘 ↑ → 초점거리 ↓

정답 : ④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커질 때 해상도가 작아진다면 (나)가 (가)보다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이는 참입니다. 이를 확인해볼까요?
 코일 전류가 높아지면 초점거리는 줄어들고, 초점거리가 줄어들면 최소 해상도는 낮아집니다. 즉 해상도는 (나)가 (가)보다 낮은 것을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나) 렌즈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가)의 경우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가)의 미세 물체 사이의 간격이 30nm보다 짧습니다. 만약 해상도가 30nm보다 크다면 저런 사진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② : 이 지문 통틀어 가장 쉬운 선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자 현미경 내부는 기압이 대기압의 1/10¹⁰ 이하인 진공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의 2번 선지랑 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쉽지만 중요한 포인트라는 뜻이겠죠? 첫 번째 문제의 2번 선지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③ : 지문에서 [수십 kV의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대략 0.01 nm 정도이다. 하지만 전자 현미경의 렌즈의 성능이 좋지 않아 해상도는 보통 수 nm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서 사용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20nm보다 크다면 지문에서 물질파 파장이 0.01nm일 때 해상도는 수 nm이 나온다고 한 것으로 만약 (나)의 물질파 파장이 20nm보다 크다면 (나)의 해상도는 20nm보다 큰 값이 나오는 것이 옳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의 경우 해상도가 10nm보다 작기 때문에, (나)에서 사용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최소한 20nm보다 작다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지문에서 비례 관계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고, 저 정도의 사고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풀었다면 추론이 꽤 필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⑤ : (나)에서 사용된 전자의 속력이 (가)에서 사용된 전자의 속력보다 작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하를 띤 입자 속도 ↑ → 자기장 영역 통과 시 받는 힘 ↑입니다. 그렇다면 (가)가 자기장 영역 통과 시 받는 힘이 늘어나는 것이고, 초점 거리는 (가)가 더 작게 됩니다.
 그런데 초점거리가 작으면 최소 해상도가 더 작아지지만 (가)의 해상도는 (나)의 해상도보다 큼니다. 즉 (나)의 사용된 전자의 속력이 (가)의 사용된 전자의 속력보다 3배 작다면 (나)가 해상도가 더 커야 하지만 (가)의 해상도가 더 크기 때문에, (나)에 사용된 전자의 속력이 (가)에 사용된 전자의 속력보다 더 크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총평

배경 지식이 없는 수험생이라면 체감 난도가 상당히 높았을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정보량, 몇몇 친절하진 않은 개념 설명, 많은 비례 관계. 날림으로 글을 읽었으면 주어진 3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풀었다해도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여 다른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라 말하지만 제가 다른 지문들에 비해 지문 해설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 이런 과학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며, 여기서 제가 내용 위주의 서술을 하는 것이 해설을 읽으며 지문 내용이 이해가 되어 순간적인 위안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례 관계, 과정식 서술로 진행될 때는 뻘한 얘기이지만, 결국 정리하며 읽는 것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뻘족한 묘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겹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뻘한 말이지만 결국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4일차 지문 해설

현대 문학의 주요 비평 개념 중 하나인 멜랑콜리는 본래 '검은 담즙'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 용어였다. 그 당시 검은 담즙은 '우울과 슬픔에 젖는 기질'의 원인으로 간주되었고, 나태함, 게으름, 몽상 등은 '우울질'의 표현이자 멜랑콜리의 속성이라 분류되었다.

멜랑콜리의 과거의 뜻을 제시하며 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멜랑콜리가 글에서 핵심 개념일 가능성이 높겠죠? 멜랑콜리에 대해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현재 제시된 정보들은 무난하게 이해될 수준이니 계속 독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속성(멜랑콜리의 속성)들은 열정처럼 적극적으로 분출되는 감정이 아니라 열정의 결여 상태, 즉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쇠락해진 상태와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멜랑콜리는 열정이 결여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쇠락해진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독해 시 이 문장을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독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멜랑콜리에 대한 배경지식이 이와 상충된다 하더라도 이제 지문 독해 시 멜랑콜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쇠락된 상태와 관련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멜랑콜리가 야기하는 정신적 무능에 대해 키르케고르는 "멜랑콜리는 무사태평한 웃음 속에서 메아리치는 이 시대의 질병이며, 우리로부터 행동과 희망의 용기를 앗아 간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멜랑콜리는 시대의 질병이며 행동과 희망의 용기를 앗아간다는 키르케고르의 주장이 제시됩니다. 이 정도를 읽었으면 이 글이 멜랑콜리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며 글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독해 시 함부로 하는 예측은 독이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각 견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독해를 하는 것은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멜랑콜리는 상실을 인식하고 그 상실감에 자발적으로 침잠하는 태도이다. 일회적이고 찰나적이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상들을 향한 상실감에서 멜랑콜리는 유래한다. 그럼에도 멜랑콜리는 다만 어둡지만은 않으며 매혹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멜랑콜리에 대한 지문의 견해가 제시됩니다. 멜랑콜리가 자발적으로 일회적이고 찰나적이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서 유래되지만, 멜랑콜리는 매혹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멜랑콜리가 왜 매혹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시되겠죠?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 독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처럼 인식 불가능한 타자성을 외면하기보다 차라리 자기 안에 가두려는 욕망이기 때문이다. 멜랑콜리는 대상의 상실에 따른 퇴행적 반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실된 대상을 살아 있게 만드는 몽환적인 능력이다.

멜랑콜리가 마냥 어두운 것이 아닌 매혹적인 이유는 타자성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안에 가두는, 상실된 대상을 살아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일하게 독해 시 추상적인 내용이 등장할 때 개인의 주관을 개입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이해하는 것과 주관을 개입시키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추상적으로 제시된 부분일지라도 글에 제시된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자세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타자성을 자기 속에 가두고 관조하면서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 들려는 자, 즉 멜랑콜리커(Melancholiker)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상실된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의 부재이며, 이 대상이 현존하지 않는 한에서 그것은 늘 점유를 향한 멜랑콜리커의 욕망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앞서 계속 멜랑콜리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다 이제 멜랑콜리의 특성을

가진 자 멜랑콜리커라는 개념이 제시됩니다. 이들의 추구는 상실된 대상 자체가 아닌 그 대상의 부재, 대상이 현존하지 않는 한에서 점유를 향한 욕망을 추동한다.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었으니 이 정도로 수준까지 정리된 상태로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멜랑콜리의 몽환적 능력은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측면에서 여러 견해를 낳았다.

멜랑콜리의 몽환적 능력은 '현실을 대하는 측면에서' 여러 견해를 낳았다. 글에서 대놓고 멜랑콜리의 몽환적 능력에 대한 여러 견해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개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은 '현실을 대하는 측면에서'입니다. 이제부터 제시되는 멜랑콜리의 다양한 견해는 '현실을 대하는 측면'이 구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인식하고 각각의 견해를 정확하게 구분하겠다는 인식 하에 독해를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야민이 "멜랑콜리커의 고독과 침잠, 즉 외면적 부동성(不動性)은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라 사물을 꿰뚫어 보는 깊이 있는 사유를 상징"한다고 한 것은 대표적이다. 그(벤야민)는 멜랑콜리커의 고독이 곧 사물에 대한 통찰의 깊이를 나타낸다고 본다.

바로 멜랑콜리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가 제시됩니다. 처음으로 제시된 견해로 구분할 다른 견해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tip - 개념어 체크

이렇게 다양한 견해로 글이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각 견해를 구분하기 쉽게 지문에 표시를 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지문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 특정 부분만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닌 지문의 전체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문제 풀이 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기호나 체크가 추가되는 독해는 지양해야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기호 사용은 개인에 따라 독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충분히 슬퍼한 후에 일상으로 귀환하는 애도와 달리 멜랑콜리는 "상실한 대상과 자아가 하나가 되어 버리는 감정"이라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아를 일상에서 격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벤야민은 멜랑콜리커에 대한 얘기만 진행했는데 프로이트는 애도와 멜랑콜리를 대조하며 애도는 슬퍼한 후 일상으로 귀환하지만 멜랑콜리는 일상으로의 귀환이 아닌 상실한 대상과 하나가 되어 자아가 일상에서 격리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글에서 대놓고 대조해주고 있는 부분은 문제화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의해서 읽어야겠죠.

물론 무기력한 슬픔이라는 멜랑콜리의 특성은 이성적인 절제를 강조해 온 근대 사회에서는 결코 환영받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 하이데거가 근대에 유일하게 남은 열정이 있다면 '열정의 소멸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한 것도 근대 사회의 이러한 이성주의적 특성(이성적 절제를 강조해 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멜랑콜리는 근대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는 점이 제시되며, 그와 연관된 하이데거의 멜랑콜리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근대 사회와 멜랑콜리의 관계로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이후 근대 사회와 멜랑콜리의 관계로 글이 진행된다고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배치로 글이 아주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전개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저 포인트로 글이 그렇게 진행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사후적인 독해 해설이고 현실성이 없는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전에서는 그냥 벤야민, 프로이트, 하이데거 각각의 견해를 혼동하지 않고 정리하고 내려가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멜랑콜리는 미래에 대한 낙관과 혁신에 대한 자신감 위에 설립된 근대의 진보적 세계관의 필연적인 그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읽은 순간부터는 멜랑콜리와 근대의 진보적 세계관의 차이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근대가 창출한 ㉠ 사회적 모더니티는 국민국가, 자본주의 그리고 시민주의를 축으로 하는 공적 제도의 영역에서, 베버의 언급을 따르자면 '정신(Geist) 없는 전문가'와 '가슴 없는 향락가'들을 양산해 낸다.

멜랑콜리와 대비되는 개념인 사회적 모더니티가 제시되었습니다. 공적 제도의 영역에서 베버의 언급으로 정신 없는 전문가 가슴 없는 향락가를 양산해 낸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 역시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제시되었을 땐 지문을 읽으며 자신의 주관에 개입시킨 판단을 한 뒤 선지를 읽는 것보다, 개인의 주관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독해 후 선지에서 판단하는 과정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모더니티의 지배적 가치들에 저항하는 태도라 할 ㉡ 문화적 모더니티는 진보하는 부르주아지의 공적 세계가 은폐한 사적 공간에서 멜랑콜리커들을 키워 낸다. 문화적 모더니티는 부르주아지의 근대가 아니라 소위 사회적 부적응자들, 즉 몰락한 귀족, 롬펜 프롤레타리아트, 실패한 예술가, 부유(浮遊)하는 지식인들처럼 세계의 바깥에서 떠도는 존재들의 근대이다.

문화적 모더니티는 사적 공간에서 멜랑콜리커들을 키워내고 사회적 부적응자들, 세계의 바깥에서 떠도는 존재들의 근대라는 점을 제시합니다. 이때 앞서 사회적 모더니티를 읽을 때와는 약간 다른 독해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모더니티를 읽을 때는 대조될 쌍이 제시되지 않아 있는 그대로 독해를 진행하면 됐지만, 문화적 모더니티는 대조되는 쌍인 사회적 모더니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읽으면서 둘의 차이를 구분하며 내려갔어야 합니다. 사회적 모더니티는 공적 영역에서 ↔ 문화적 모더니티는 사적 공간에서 이렇게 독해 시 대조되는 쌍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진행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tip - 비교 · 대조 쌍
실제 독해 시 a와 b가 대조되는 전개 방향이라면 a를 읽을 때는 있는 그대로 정리를 잘하면서 독해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a이후 제시되는 b를 읽을 때는 a와의 공통점과 구분되는 차이를 생각하며 독해를 진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비교 · 대조 쌍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문제로 출제되기 마련이고, 지문 독해 시 이러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한다면, 지문 이해는 물론이고 문제 풀이까지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모더니티의 주체는 계산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세계와 대면하고, 규율의 엄격성에 따라 세계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세계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멜랑콜리커들은 세계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찾는 데에 몰두하고자 한다. 이에 멜랑콜리커는 흔히 탐구자 혹은 수집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모더니티의 주체는 계산적 합리성에 근거, 규율과 엄격성에 따라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여 세계의 주인이 됨 ↔ 멜랑콜리커들은 세계의 주인x 자신이 상실했다 생각하는 무언가를 찾는 것에 몰두하는 탐구자 수집가가 됨. 세계의 주인이 되는 사회적 모더니티의 주체와 주인이 되지 않는 멜랑콜리커들의 명확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대조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문제로 출제될 것임을 인지하고 독해를 계속 진행합니다.

사회적 모더니티는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외적 자연을 탈신비화하고, 열정을 이해관계로 치환하여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감정의 횡포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나 문화적 모더니티는 이러한 해방(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감정의 횡포로부터 해방)의 역설적 결과로 나타난 환멸감 속에서, 도리어 잃어버린 것들을 우울의 감정으로 보존하려고 한다.

계속해서 사회적 모더니티와 문화적 모더니티를 대조하며 글이 진행됩니다. 사회적 모더니티는 자연을 탈신비화 하고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감정에서 해방시킴. ↔ 문화적 모더니티는 내적 자연마저 감정의 횡포로부터 해방된 환멸감에서 잃어버린 것을 우울의 감정으로 보존.

이때 문화적 모더니티에 대한 문장을 읽을 때 '이러한 해방'에 대한 독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번째 문제에서 모든 선지가 답으로 보여 답을 고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셨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독해 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문제를 다룰 때 자세하게 서술하겠습니다.

이로써 멜랑콜리는 일종의 문명 비판적인 태도가 된다. 멜랑콜리는 사회적 모더니티가 빠른 속도로 일소한 근원적 가치들과 대상들을 문화적 모더니티의 영역에서 보존한다.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우울하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울한 자들에게만 이러한 가치(사회적 모더니티가 빠른 속도로 일소한 근원적 가치)들은 부재하는 현존이라는 역설적 방식으로 살아남는다. 상실된 가치와 대상들을 아직 신앙하는 자는 우울하지 않다. 또한 이들이 완벽하게 소멸되었다고 믿는 자 역시 우울할 수 없다. 멜랑콜리커는 그 중간에 머물면서 '소멸됨으로써 살아있는 어떤 것'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 한 문단 전체가 멜랑콜리, 멜랑콜리커의 특성으로 제시된 상실된 대상을 살아있게 만드는 몽환적 능력, 잃어버린 것들을 우울의 감정으로 보존 등의 재진술로 멜랑콜리와 멜랑콜리커의 설명을 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단을 읽을 때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독해가 마무리 됐다면 앞선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독해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인 독해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일차 문제 해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답 : ㉔

벤야민은 멜랑콜리커의 고독과 침잠, 외면적 부동성은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라 사물을 꿰뚫어 보는 깊이 있는 사유를 상징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깊이 있는 사유와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는 사유를 교체할 수 있는 말로 인식만 되셨다면 크게 무리 없이 답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선지

㉑ : 키르케고르는 멜랑콜리의 정신적 무능이 실존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절망을 해소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멜랑콜리는 행동과 희망의 용기를 앗아간다고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절망을 해소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㉓ : 지문에 제시된 프로이트의 견해에 따르면 상실된 대상과 자아가 통합되는 것은 멜랑콜리이지 애도가 아닙니다. 대놓고 지문에서 대조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인식했다면 크게 무리 없이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㉔ : 지문 어디에서도 하이데거가 능동적 절제를 통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근대인의 근본적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이데거가 이성적 절제를 강조해 온 근대 사회의 이상주의적 특성과 관련된 근대에 유일하게 남은 열정이 있다면 '열정의 소멸에 대한 열정'이란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 말을 하이데거가 이것이 근대인의 근본적 자세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판단 오류입니다.

㉕ : 베버는 근대 사회가 정신 없는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숙련된 기술을 갖춘 엘리트층을 채워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닌 정신 없는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tip - 다양한 견해 / 개념어 등장

여러 인물이 나오고 그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면 각 인물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를 구분하며 독해하는 자세는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부분이 갖춰져 있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㉑(사회적 모더니티)과 ㉔(문화적 모더니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 ㉔

문화적 모더니티는 이성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져온 역설적 결과로 나타난 환멸감을 근간으로 성립된 것이 아닌, 감정으로부터의 해방이 가져온 역설적 결과로 나타난 환멸감을 근간으로 성립된 것입니다.

문제를 대충 감으로 푸신 분들이라면 2번 선지를 고르지 못하고 모든 선지가 답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ip - 당겨읽기(편의상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독해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이 문제의 답을 결정한 문장인 ['이러한' 해방이 역설적 결과로 나타난 환멸감 속에서~]를 읽을 때 '이러한'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독해를 그냥 진행하셨다면 2번 선지를 고르기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모더니티는 이성적이고 멜랑콜리는 뭔가 감정적인 느낌이니까 문화적 모더니티가 이성으로부터의 해방은 맞지. 이런 식의 과정을 밟으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을 때 지시어(이러한, 그, 이에 따라 등등..)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이러한~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독해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지시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 지시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하는 당겨읽기를 해야 합니다.

독해를 잘 한다는 것은 결국 얼마나 지문을 잘 이해하며 읽었느냐입니다. 그런데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의미를 당겨 읽는 기본적인 습관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단과 문단의 뜻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독해를 연습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수준의 당겨 읽기가 기본이 되어야 그 이후 문단과 문단 그를 넘은 지문 전체를 유기적으로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 영향력은 사소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독해 태도임으로 꼭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선지

㉑ : 사회적 모더니티는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외적 자연을 탈신비화하고, 열정을 이해관계로 치환하여 내적 자연마저 감정의 횡포로부터 해방시켰다. 이 문장을 통해 사회적 모더니티가 외적 자연과 내적 자연을 구분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외적 자연을, 이해관계로 내적 자연을 지배한 것으로 이들 모두를 계산적 합리성을 통해 지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㉓ : 사회적 모더니티는 규율의 엄격성에 따라 세계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세계의 주인이 되고, 멜랑콜리커들은 세계에 주인이 되기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문에서 대놓고 대조한 부분이 그대로 문제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㉔ : 사회적 모더니티는 공적 제도의 영역에서 정신 없는 전문가와 가슴 없는 향락가들을 양산하고, 문화적 모더니티는 사적 공간에서 멜랑콜리커들을 양산하는 것에서 이 둘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근대가 만들어낸 대립적 인간상이 출현하는 양산과 관련됨을 알 수 있습니다.

㉕ : 사회적 모더니티는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외적 자연을 탈신비화하고, 문화적 모더니티는 근대적 발전이 앗아간 것들(사회적 모더니티가 일소한 근원적 가치들)을 부재하는 현존이라는 역설적 방식으로 살아남게 해서 보존합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최명익의 「비 오는 길」(1936)은 식민지 근대화가 진행되는 도시의 풍경을 그린다. 표제는 주인공 병일의 내면을 '우울한 장맛비'로 비유한 것이다. 작가는 정치적 저항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과거의 이상을 잃고 슬퍼하는 청년을 주인공으로 선택했다. 병일의 상실감은 특정 대상에 집착하는 증세인 독서벽(讀書癖)으로 나타난다. 그의 독서벽은 독서회를 조직하여 삶의 목표와 정치의식을 고민하던 학생 시절의 유산이다. 궁핍하게 살아가는 병일에게 이웃 사내는 책 살 돈으로 저축하라 훈계하지만, 병일은 책이 없으면 최소한의 자기 생활도 없을 것이라고 답한다. 그의 태도는 돈을 모아 '세상살이'를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이웃 사내의 인생관과 대조를 이룬다. 병일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만 이웃 사내의 생활이 행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군중 속에서 홀로 '방향 없이 머뭇거리는 고독감'에 잠기면서도 병일은 책을 읽는다.

<보기> 분석

<보기>에서 병일은 부재하는 과거의 이상을 잃고 슬퍼하는 청년 = 잃어버린 것들을 우울의 감정으로 보존하는 멜랑콜리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파악했다면 문제 풀이에는 지장이 없으니 문제를 풀어봅시다.

정답 : ㉔

이웃 사내가 세상살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쇠약해진 인물이다? 지문에 의거하면 멜랑콜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쇠약해진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쇠약해진 것은 이웃 사내가 아닌 멜랑콜리커인 병일이 맞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지문에 의거한 문제풀이가 아닌 멜랑콜리는 이성보단 감성이지~라고 감으로 맞추는 식의 문제풀이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제풀이 시 1원칙은 감이 아닌 지문에 근거한 풀이를 진행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선지

① : 병일이 느끼는 방향 없이 머뭇거리는 고독감은 지문의 마지막에서 상실된 가치와 대상을 아직 신앙하는 자는 우울하지 않고(= 믿음.) 이들이 완벽하게 소멸되었다고 믿는 자 역시 우울할 수 없다(=불신) 멜랑콜리커들은 그 중간에 머물면서 소멸됨으로써 살아있는 어떤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제시한 것으로 믿음과 불신 사이에 끼어있는 중간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판단은 가능합니다.

② : 멜랑콜리커들은 세계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찾는데 몰두하고 이에 탐구자 혹은 수집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세상살이를 외면하고 과거 정치의식을 고민하던 학생 시절의 유산에 집착하는 병일에게서 탐구자로서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③ : 이웃 사내는 병일과는 다르게 식민지 도시의 일상적 가치(저축하며 사는 삶)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멜랑콜리커인 병일과 대비되는 인물이죠. 아마 이 선지를 적절하지 않다고 고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⑤ : 작가는 정치적 저항이 불가능해진 멜랑콜리커 병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이렇게 멜랑콜리커를 등장시킨 것으로 근원적 가치가 부재의 상태로 보존된다는(가치가 부재하는 현존이라는 역설적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을 드러내려했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총평

지문 난도가 매우 높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지문이지만 정확한 독해를 하지 못했다면 문제풀이에서 상당히 고전할만한 지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버겁지는 않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제시된 개념(멜랑콜리, 사회적 모더니티 등)에 대해 지문에 의거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돼 지문을 잘 읽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문제풀이 시 오답으로 갔을 가능성이 꽤 있고, 당겨 읽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등의 난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당한 난도를 자랑하는 leet지문들에 비해서 이 지문이 특출나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지문에서 강조한 당겨 읽기, 주관을 배제한 독해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 독해 습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습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배워가셔서 다른 지문을 읽을 때도 이 두 가지 독해 습관을 꼭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5일차 지문 해설

동물은 쾌락, 고통 등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그들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 동물감정론이다. 한편 ㉡ 동물권리론에 따르면 동물도 생명권, 고통받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닌 존재인 만큼 그들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동물감정론과 동물권리론을 비교하며 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물감정론은 동물의 쾌락, 고통에 초점을 맞춰, 동물권리론은 생명권 등의 권리에 초점을 맞춰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을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 둘을 단순 비교하며 글이 진행될지, 다른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니 우선 동물감정론과 동물권리론 각각을 정확하게 구분한 뒤 독해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동물도 윤리적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두 이론을 극단적으로 전개하면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 포식에 관한 비판(동물도 윤리적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두 이론이 극단적으로 전개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은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대표적인 입장이다.

동물감정론과 동물권리론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그를 비판하는 포식에 관련된 비판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식에 관련한 비판은 ㉠과 ㉡의 극단적 전개 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지, 포식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을 포식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한다면 글 전체를 잘못 읽을 우려가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음식, 의류 등으로 이용해 왔지만, 인간만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야생의 포식 동물 또한 피식 동물을 잔인하게 잡아먹는다. 피식 동물이 느끼는 고통은 도살에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인간만이 동물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고 포식 동물 또한 피식 동물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시됩니다. 독해에 크게 무리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의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육식이나 실험 등이 고통 유발이나 권리 침해 때문에 그러다면, 야생 동물의 포식이 피식 동물의 고통을 유발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 또한 그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육식 등은 막아야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동물의 포식까지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인간의 육식이나 실험이 고통 유발(감정론)이나 권리 침해(권리론)를 유발하는 것이 그러면 야생 동물의 포식이 피식 동물의 고통을 유발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 또한 그러다. 그렇지만 동물의 포식까지 막아야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점은 동물 포식을 막는 것은 터무니없는, 즉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육식 등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장을 오독하여 인간의 육식 등은 그런 것이고, 동물의 포식은 그러지 않다고 문장을 이해했다면 첫 번째 문제에서 오답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장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독해의 기본은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일일이 막는 것은 우선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다. 설령 가능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 질서를 깨뜨리므로 옳바르지 않다.

예시를 통해 일차적으로 포식을 막는 것이 능력을 벗어나고, 만약 능력이 된다면 하더라도 자연 질서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 말하며 동물의 포식을 막는 것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예시가 추상적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감정론과 동물권리론이 야생 동물의 포식을 방지해야 한다는 과도한 의무까지 함축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그 이론을 비판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동물감정론과 동물권리론이 야생 동물의 포식 방지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근거로 이 둘을 비판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비판점은 ㉢=포식에 관련한 비판의 입장으로 볼 수 있겠지요? 2문단의 내용이 ㉢=포식에 관련된 비판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2문단까지 독해를 했을 때 독해가 붕 뜨고 이후 문제를 풀 때도 시간을 상당히 소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감정론은 윤리 결과주의에 근거한다. 이것은 행동의 올바름과 그름 등은 행동의 결과에 의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형적 윤리 결과주의인 공리주의에 따르면 행동의 효용, 곧 행동이 쾌락을 극대화하는지의 여부가 그 평가에서 가장 주요한 기준이 된다. 이때 효용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통의 총량을 차감한 쾌락의 총량에 의해 계산한다.

포식에 관련한 비판 이후 동물감정론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식에 관련한 비판과 연관 있는 내용으로 전개될 것 같지만, 아직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동물감정론은 윤리결과주의=공리주의에 근거한다. 정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독해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공리주의의 내용은 워낙 익숙한 내용이니 이해하시는 것에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감정론이 포식 방지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대한 공리주의자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동물감정론이 포식에 관련한 비판에 대한 반박을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전개한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 방향이 확인되면 '포식에 관련한 비판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핵심으로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하면 됩니다.

포식 동물의 제거 등을 통해 피식 동물을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락의 총량보다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를 통해 유발될 고통의 총량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동물을 이유 없이 죽이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으로 인간이 해야 할 바를 다한 것이며 동물의 행동까지 규제해야 할 의무는 없다.

공리주의의 효용계산법인 쾌락의 총량 - 고통의 총량을 통해 피식 동물을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락의 총량보다 생태계의 변화를 통해 유발될 고통의 총량이 더 크다는 결론으로 야생동물의 포식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의무가 없다며 ㉢='포식에 관련한 비판'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를 동원한 동물감정론은 포식 방지가 인간의 의무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동물감정론의 반박은 포식 방지에 대한 의무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바로 제시가 됩니다. 그 이유가 이어서 제시되겠지요? 왜 증명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집중하며 독해를 진행합니다.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포식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더욱 수월해지고,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실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쾌락 총량의 극대화를 기치로 내건 동물감정론에서의 효용 계산으로 포식 방지의 의무가 산출될 수도 있다.

만약 기술 발전으로 포식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수월해지고 늘었을 때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커지면? 동물감정론의 입장에서는 포식 방지 의무가 생성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첫 문단에서 말한 것처럼 동물감정론이 극단적으로 전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동물감정론에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합니다.

한편 **동물권리론**은 행동의 평가가 '의무의 수행' 등 행동 그 자체의 성격에 의거해야 한다는 윤리 비결과주의를 근거로 내세운다. 전형적 윤리 비결과주의인 의무론에 따르면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자의 의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동물감정론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이제 동물권리론에 대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동물권리론은 동물감정론이 공리주의에 근거한 것과 다르게 윤리 비결과주의인 의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글의 흐름을 보니 앞선 동물권리론에 대한 전개가 동물감정론의 내용 전개와 비슷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흐름을 인식하고 있으니 '이해'에 더욱 포커스를 두고 독해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권리론이 포식 방지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무론자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도덕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반면, 포식 동물과 같은 도덕 수동자는 그런 능력이 결여된 존재이다. 의무를 지니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도덕 수동자는 도덕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그런 의무를 지니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육식에서나 동물의 포식에서도 동물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동물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을 갖지 않기에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을 의무도 없다. 결국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 포식하는 것을 막을 인간의 의무 또한 없다는 것이다.

앞서 동물감정론에 대한 설명을 한 뒤, 동물감정론이 포식에 관련된 비판에 대한 반박을 진행한 것처럼 동물권리론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권리론은 동물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없는 도덕수동자로 의무를 지니지 않으며,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을 의무가 없다. 그로 인해 인간이 포식을 막을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포식에 관련된 비판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글이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면 이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나오겠죠? 확인해봅시다.

하지만 의무론을 동원한 **동물권리론**은 포식에 관련한 비판을 오해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포식 방지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사자(도덕수용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할 때 우리(도덕행위자)가 그것을 그만 두게 할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이지, 사자가 그만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재미로 고양이를 괴롭히는 아이는 도덕 수동자이니 그 행동을 멈춰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부모 또한 이를 막을 의무가 없다고 하겠는가?

역시 동물권리론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이어집니다. 포식 방지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사자(도덕수용자)가 의무가 있는지가 아닌, 우리(도덕행위자)가 포식을 말릴 의무가 있는지이고, 고양이를 괴롭히는 아이(도덕수동자)는 괴롭히지 않을 의무가 없으니 부모(도덕행위자)가 말릴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는 설의적인 물음을 통해 동물권리론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하며 글이 마무리됩니다.

글에서 대놓고 문제점을 물어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얘기는 해당 문제에서 자세하게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동물감정론과 동물권리론을 미세하게 구분하고 있지도 않고 둘의 구분점 또한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입장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라 독해 자체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는 않은 주제로 음~ 음~ 하면서 자연스럽게 독해를 진행했음에도,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독해를 그냥 진행했다면, 실제 문제를 풀 때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㉔ 포식에 관련한 비판의 뜻을 '포식 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오독하고 넘어갔거나, 그로 인해 2문단이 ㉔의 입장임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글을 잘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풀 때 첫 문제에서 시간을 상당히 소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해의 기본은 주어진 글 내에서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끔 문장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지문을 통해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것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5일차 문제 해설

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동물감정론 ㉡ - 동물권리론 ㉢ - 포식에 관련한 비판

답 ②

동물권리론은 윤리 비결과주의인 의무론에 근거하고 의무론은 행위자의 도덕성은 행위자의 의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이 동물에 대해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인간의 '도덕 행위자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도덕 행위자여야 의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전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도덕 행위자가 아닌, 도덕 수동자는 의무를 지지 않는 존재이니까요.

나머지 선지

① : 동물감정론은 윤리 결과주의인 공리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고통에 '총량'을 차감한 쾌락의 총량에 의해 계산되기에 동물의 포식 때문에 생겨나는 야생의 고통 또한 효용 계산에 포함할 것입니다.

③ : 문장 독해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오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에서 인간의 육식이나 실험 등이 고통 유발이나 권리 침해 때문에 그러다면, 야생 동물의 포식이 피식 동물의 고통을 유발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 또한 그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육식 등은 막아야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동물의 포식까지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육식이 그러면 동물의 포식 또한 그러다. 그렇지만 동물의 포식은 그러지 않다고 말한 것에서 최소한 인간의 육식이 그러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④ : 동물감정론은 애초에 의무로 문제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물권리론은 동물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을 갖지 않기에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동물에게 포식 금지의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볼 수 없습니다.

⑤ : 포식에 관련한 비판은 설령 가능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 질서를 깨트리므로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 파괴에서 포식을 방지하는 행동이 그런 까닭을 찾습니다. 그러나 동물감정론은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 파괴 자체가 아닌' 거기서 나오는 행동의 효용에 대한 계산을 통해 포식을 방지하는 행동이 그런 까닭을 찾는 것입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답 : ②

ㄱ. 공리주의에 따르면, 포식 동물의 제거로 늘어날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커지면 포식 동물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공리주의는 행동의 효용, 행동이 쾌락을 극대화 하는지 여부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식 동물의 제거로 늘어날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크다면 포식 동물을 제거할 것이라는 판단은 타당합니다.

ㄴ. 공리주의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의 범위는 야생에 개입할 수 있는 인간의 기술 발전 수준에 반비례할 것이다.

지문에서 공리주의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할 때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포식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더욱 수월해지고,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실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술이 발전되면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의 범위가 비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ㄷ. 의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피식 동물을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지문의 의무론의 반박에서 동물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을 갖지 않기에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을 의무도 없고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 포식하는 것을 막을 인간의 의무 또한 없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의무론에 따르면 피식 동물을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반드시 그럴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ㄹ. 의무론에 따르면, 동물을 대하는 인간 행동의 올바름, 그름 등은 결과가 아닌 행동 그 자체의 성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문의 동물권리론은 행동의 평가가 '의무의 수행' 등 행동 그 자체의 성격에 의거해야 한다는 윤리 비결과주의를 근거로 내세우고 전형적 윤리 비결과주의인 의무론에 따르면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자의 의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ㄱ~ㄹ 엄청난 이해나 추론이 필요하다기보단 지문의 내용을 복붙한 수준이라 <보기>문제라고 풀지만 않았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문제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점] = 의무론을 동원한 동물권리론이 포식에 관련한 비판을 오해했다는 문제점. 그렇다면 어떤 지점을 오해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답 : ①

포식방지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사자(도덕 수동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할 때 우리(도덕 행위자)가 그것을 그만 두게 할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도덕 수동자의 행위를 도덕 행위자가 그만 두게 할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인 것이죠 이 핵심은 마지막 예시인 아이(도덕 수동자)가 고양이를 괴롭힐 때 그 행동을 멈출 의무가 없더라도 그 부모(도덕 행위자)가 이를 막을 의무가 없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도덕 수동자인 아이는 의무(책임)이 없지만 도덕행위자인 부모는 그를 막을 의무(책임) 없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즉 도덕 수동자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도덕 행위자가 도덕 수동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와 부모의 예시가 문제의 난도를 상당히 낮춰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예시가 나오면 그냥 읽는 것이 아닌 항상 아이(도덕 수동자) 부모(도덕 행위자) 이런 식으로 지문의 상황에 맞춰 읽는 것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선지 ②③④⑤

tip - 문제점, 비판 등의 문제

지문에서 특정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비판을 물을 때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 뇌에서 100% 탄생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점이나 비판을 시킬 때는 반드시 지문에 문제점에 관련된 내용, 비판에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고 우리는 제시된 그 내용에 입각하여 선지를 대하는 것이지 절대로 자신의 의견 100%로 이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